

# 神話와 日帝의 植民地教育\*

魯 成 煥\*\*

차 례

- |                          |                     |
|--------------------------|---------------------|
| 1. 서 론                   | 4. 일제의 식민정책과 교과서 편찬 |
| 2. 식민지 교육정책과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 | 5. 결 론              |
| 3. 식민지 교과서와 신라정벌담        |                     |

## 1. 서 론

얼마전 일본의 토오쿄오 근교 우라와(浦和)라는 곳에서 2개월간 체류할 기회가 있었다. 나의 숙소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철역이 있어서 도오쿄오에 볼일이 있어도 손쉽게 전철을 타고 갈 수 있었다. 그와같이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도 주택지역이라서 한적하여 공부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어느 한 집이 항상 나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 그 집은 전철역 가까이 길모퉁이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주륜장(駐輪場)이었는데, 바로 그 집 벽에 옛날 일본이 식민지를 확대하고 군국주의를 부르짖을 무렵 천황의 이름으로 공포하고 강요했던 “교육칙어(教育勅語)”를 활자화하거나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 중점연구소 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차년도 중간보고)

\*\*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또는 직접 펜으로 쓴 포스터가 여기저기 어지럽게 붙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인간이 일본에 있다니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난 나로서는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이것은 일본의 치욕이다.”고 그 옆에 쓰여진 낙서가 유일한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는 일본인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전 일본의 신임총리인 모리 요시로(森喜朗)씨가 교육칙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더니, 그는 또 이어서 “일본은 천황 중심의 신의 나라”라고 발언하여 각계 각종으로부터 빈축을 산 적이 있다<sup>1)</sup>. 이만큼 천황을 절대화하는 교육칙어에 의한 교육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인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웃에 사는 우리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칙어란 일본 국내인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인에게도 강요되었다. 그 예로 1932년 조선총독부가 낸 “보통학교 修身”이라는 교과서 첫 장에는 일본천황이 조선총독에게 식민지인(조선인)을 천황의 충실한 신민이 되도록 교육시킬 것을 하명하는 교육칙어의 내용을 그대로 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칙어는 식민지에게는 곧 자기의 것을 버리고 일본의 것을 취득함으로써 일본인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이 식민지인에게 민족의 독립과 교유의 역사, 언어, 문화등을 빼앗고 일본제국주의에 예속을 강요하는 황민화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sup>2)</sup>. 황민화란 교육칙어를 받들어 일본(천황)에게 충실하고 선량한 천황의 신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만일 일본이 우리들에게 교육칙어라는 이름으로 민족문화를 말살시키려는 교육정책을 실시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막연히 일제는 우리의 고유정신을 없애고 영구적인 일본의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 정책당국자들에 의해 편찬되고 발행된 교과서가 매우 중요

1) 조선일보 2000년 5월 17일자

2) 磯田一雄 「皇民化教育と植民地の國史教科書」『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4) 統合と支配の論理』(岩波書店,1993年)p113

하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식민통치교육의 이념이 깃든 교과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간헐적으로나마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측에는 손인수<sup>3)</sup>, 이숙자<sup>4)</sup>, 박영숙<sup>5)</sup>등의 연구를 들 수 있고, 일본측으로는 이소다 카즈오(磯田一雄)<sup>6)</sup>, 모리다 마사오(森田芳夫)<sup>7)</sup>등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이 여러 과목 중 주로 언어(국어·조선어)와 역사 그리고 수신에 집중되어있다. 예를 들면 이숙자는 조선어와 국어·수신을 다루고 있고, 박영숙은 국어를, 소다는 역사를, 모리다는 국어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목이 한정되어지는 것은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식민지교육정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잘 반영되어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과목보다도 이상과 같은 과목이 선호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접근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적지 않았다. 즉, 그것은 시대별 정책에 따라 전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내용이 변해가는 것을 추적해 나감으로써 식민지 정책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구는 식민교육정책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식민교육정책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단원들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본고는 바로 이 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 개별단원을 선택하여 교과서의 개정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교과서의 전체가 아닌 개별단원의 연구인 것이다.

3)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연세대출판부, 1971년)

4) 이숙자 「教科書に描かれた朝鮮と日本」(ほるふ出版, 1985년)

5) 박영淑, 「植民地時代における日本語教育政策と普通學校教科書の研究」[日本文化學報(6)](日本文化學會, 1999년)

6) 磯田一雄 [皇國の姿を追って](皓星社, 1999년)

7) 森田芳夫 [韓國における國語, 國史教育](原書房, 1987년)

모든 교과서는 몇몇의 단원으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는 의외로 한일양국의 신화가 많이 등장한다. 일본이 조선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것들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가령 한국측의 기록에서 취한 것들로는 주로 신라의 인물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라의 시조왕인 박혁거세 그리고 3대왕인 석탈해,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했다는 연오랑과 세오녀, 또 일본에서 신라로 건너와 고위관직에 올랐다는 호공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그 반면 일본측 기록에서는 천황족의 선조신인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의 남동생 스사노오(須佐之命), 일본에 건너갔다는 신라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槍), 그리고 신라를 정벌하였다는 전설상의 인물 신공황후(神功皇后)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원전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었다. 정책에 따라 그 내용이 변질되고 왜곡되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가령 혁거세와 탈해왕이 일본에서 태어난 것으로 서술하거나, 또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또 천황의 선조신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오가 하늘에서 신라에 내려와 통치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신라왕자 아메노히보코와 그의 후손들이 일본 천황에게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였고, 또 신공황후가 임신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정벌하였더니 고구려와 백제의 왕들도 모두 항복하여 일본이 고대 한반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로 각색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심하고 어느 교과서에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등장했던 것은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이다.

본고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을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특성은 일제의 식민정책과 가장 잘 부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변화되어가는 내용들을 추적하여 봄으로써 일제가 단순히 신화적 전승에 지나지 않는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을 교과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식의 교육을 하려고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도 일본신화 중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일고대사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읽고 넘

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열규<sup>8)</sup>, 황폐강<sup>9)</sup>, 김정학<sup>10)</sup>, 노성환<sup>11)</sup>의 것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오늘날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는 신공황후의 전승이 허구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신화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굴절되어가는 모습을 추적함으로써 그 속에 감추어진 지배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 2. 식민지 교육정책과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

그 추迹에 앞서 먼저 일제가 무엇때문에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을 조선인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은 일제가 우리의 강토를 식민지로 만들기 전부터 이미 자신들은 일찍부터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가령 1850년에 출판으로 편찬된 『本朝 千字文 傍注』의 본문에 「息長帶姬征伐三韓」이라는 제목하에 신공황후를 소개하면서 그녀의 남편 仲哀가 삼한을 퇴치할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사망함으로써 중단된 것을 그녀가 그의 의지를 받들어 삼한을 정벌했다고 적고있다. 그러한 내용은 그 이후에도 다소 가감은 있다고 하나 계속 이어져 1852년 大橋若水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 『本朝三字經』에는 “若神功犯矢鋒征三韓爲附庸收貢物討二不共”이라 기록되어 있고, 1870년 渡邊重丸의 『千字文』에는 단지 “新羅驚討”라고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1874년 戶塚楨齋의 『新千字文』에는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하였다더니 고려 백제도 모

8) 김열규 「한국신화와 일본신화」 [한국신화와 무속연구](일조각.1976년)

9) 황폐강 「일본신화 속의 한국」 [한국학보(20)](일지사.1980년)

10) 김정학 「신공황후 신라정벌성의 허구」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경주시.1982년)

11) 노성환 「신공황후전승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16)](한국어일문학회.1990년)

두 두려워하여 공물을 바쳤다.”고 서술하고 있다<sup>12)</sup>. 이와같이 우리나라 서당과 같은 사설교육기관에서 아동들에게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을 학습하였던 것이다.

明治維新이 일어나고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된 교육이 실시 되었어도 신공황후에 대한 학습은 변함없이 등장했다. 1892년 간행된 『帝國讀本』(8권)의 제16과의 제목은 「三韓征伐」이었다. 그것에 의하면 신라가 황후의 위광에 놀라 복종하는 모습을 상세히 설명한 뒤 삼한으로부터 기술자와 학자들이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하면서 신공황후가 외국에도 그 위상을 떨쳤으며, 일본이 문학과 기예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황후의 은공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은 우리를 보호국으로 만들기 바로 1년전인 1904년 문부성 이름으로 편찬된 『小學日本歷史』(高等小學校第1學年用)에도 여지없이 나타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日本武尊의 자손이 즉위하니 이를 중애천황이라 하고, 천황의 황후를 신공황후라 했다. 그 때 쿠마소가 반란을 일으켜 천황은 황후와 함께 토벌을 했다. 이 때 지금 한국의 땅에는 신라, 백제,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삼한이라 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찍부터 우리나라를 따르는 任那라는 작은 나라도 있었다. 황후는 총명하여 먼저 신라를 정벌하던 쿠마소는 저절로 평정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천황이 쿠마소와의 전투 중에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황후는 사람을 보내 쿠마소를 평정하고, 타케우찌수쿠네(武内宿禰)와 상의하여 바다를 건너 신라에 갔다. 그러자 신라왕은 이에 크게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 그러자 백제도 고려도 우리나라를 따르게 되었다. 삼한이 우리나라를 따르게 된 이후부터 그곳에서 여러가지 진귀한 공물이 진상되었고, 또 학자, 직인들도 건너왔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더욱 더 문화가 발달되었다.」(第4 神功皇后)

소위 신공황후의 정벌담이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걸쳐 잡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은 8세기의 문헌 『古事記』 및 『日本書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일본인들은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공황후와 같이 외국을 정벌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일본 역사상 매우 인기가 있었다.

12) 磯田一雄 앞의 책 p175에 수록된 것을 재인용

심지어 중세 때는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하는 그림이 대유행하여 집에 그것을 그려놓고 빌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 민간신앙까지 생겨났다<sup>13)</sup>. 이와같이 민중들에게도 신공황후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그것이 국수주의자들과 결부되면 자신들의 국위를 선양하는 대단히 좋은 자료로서 이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소다 카즈오(磯田一雄)씨에 따르면 에도시대의 역사관에는 기본적으로 조선과의 관계를 선린관계로 보는 유학자의 계통과 조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견지하는 국학자들의 역사관이 있다고 했다<sup>14)</sup>. 전자에 속하는 자들은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후자에 속하는 자들은 히데요시를 옹호하는 자로서 막부의 말기가 되면 조선을 조공국으로 보고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제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자의 국학자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막부말기 및 명치 초기의 교과서 편찬자들에 의해 신공황후가 아동들에게 끊임없이 소개되고 교육되어졌던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서울에 총독부의 건물을 지었다. 미술사가 허균에 의하면 그 건물의 중앙홀 천정에 당시 일본인 화가 와다산조(和田三造)에 의해 신공황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한다<sup>15)</sup>. 이는 식민통치에 있어서 신공이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허균은 이 그림이 이용되어진 이유를 “한국은 본시 일본땅이었다. 조선은 신공황후 때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러므로 지금의 한일합방은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것이고, 조선인은 본래의 주인을 찾아 돌아오는 것이다.”는 황당한 침략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여 이용되었다고 보았다<sup>16)</sup>. 다시 말하자면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고대에 있

13) 이를 일본인들은 “社寺參詣熨茶羅”라고 불렀다. 특히 신공황후의 신라정벌 그림에서 일본인은 사람으로 신라인을 도깨비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이채롭다. 자세한 것은 줄고 「신공황후전승에 관한 연구」[일어일문학연구(16)](한국일어일문학회, 1990년)

14) 磯田一雄 『皇國の姿を追って』(皓星社, 1999年)p176

15) 허균 『서울의 고궁산책』(호림, 1994년)p28

16) 허균. 앞의 책pp28-29

어서 비록 기간은 짧지만 일본이 조선을 직접 지배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필요했고, 그 필요성에 의해 “삼한정벌”이라는 허구의 역사가 담긴 신공황후의 신화를 이용하였던 것이다<sup>17)</sup>.

### 3. 식민지 교과서와 신라정벌담

한국에서 실시된 신공황후에 대한 역사교육은 1905년 한일합방이후 통감부 시대부터 시작되어 총독부를 거쳐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끈질기게 이어졌다. 신공황후를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는 모두 9종이다. 그 내용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식민정책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간다. 이는 일제의 교육정책이 변할 때마다 교과서의 내용도 변화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그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특징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은 신공황후의 내용을 심고있는 교과서들을 발행연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며, 그에 따른 교과서의 특징들을 살펴본 것이다. 가능하면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전하기 위해 국한혼용문이 되어있는 것은 원문 그대로 옮겼고, 일어로 되어있는 것은 직역에 가깝게 번역했다.

#### (1) 1906년(隆熙2) 學部編纂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第6卷)

이 교과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신공황후를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의 문장은 국한혼용문으로 되어있으나, 출판사의 이름이 大日本圖書株式會社라고 명시되어있듯이 인쇄는 일본에서 했다. 일본측이 1905년 보호조약으로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듬해이라서 한국통치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표현은 할 수 없다고 하나, 그 속마음을 은근히 드러내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1권의 「國旗」라는 단원 속에 우리

17) 鍾聲の會 「戰前の歴史教科書にみる朝鮮像」 [季刊 三千里(32)](三千里社, 1986年) p.98

나라와 일본의 양국기가 게재된 삼화가 나오는가 하면 권6의 「三國과 日本」이란 단원은 신공황후가 등장하여 일본의 임나국 지배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실제로 조선통감부는 일본인을 學部參與官으로 삼고 그 밑에 위원회를 두어 학부교과용 도서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의 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 신공황후가 다음과 같이 한국에 소개되었던 것이다.

“삼국시대에 이르러난 일본과 교통이 더욱 빈번하여 彼我間에서로 歸化한 자가 漸次 增加한지라. 其中에 高위고관으로 임용된 자도 不少하니라. 日本史記에 云하되 昔者 弁韓의 地에 伽倻라 稱하는 小國이 있난지라. 三國이 並起한 후 발기에 가야왕이 사자를 일본에 보내어 進장되기를 請하거날. 일본이 그 소청을 의하여 進장의 咄을 보내고 가야에 入거케하며 또 국명을 任那라 개칭하얏다 云하니라. 그 후에 임나는 누차 신라의 침략을 당하여 구원을 일본에 청한다. 일본의 신공황후가 대군을 來率하여 신라와 상전하다. 신라왕이 가히 抵擋치 못할 줄을 알고 화약을 체결하얏는지라. 適其時에 백제도 역시 일본과 通好結約하다. 自是로 아국과 일본의 관계는 愈往愈深하엿도다. 당시에 아국은 文學공예등이 早已發達하고 일본은 오히려 幼稚함으로써 아국의 학자와 장공등이 다수히 일본에 도항하여 彼國의 文化를 啓發하니라. 백제의 사자가 일본에 이른다. 일본황제가 그 사자의 박학다식함을 보고 물어 말하되 경의 나라에 경보다 우성한 학자가 있느뇨. 사자가 대답하되 왕인이라하는 박사가 있스니 아국의 제일되는 학자이니라. 於是에 일본이 사전을 倂進하여 왕인을 禮聘하니. 왕인이 일본에 이르러 논어와 및 천자문을 進하니. 於是乎 日本에 漢學이 始傳하다. 이는 距今一千六百九十年의 일이라. 왕인은 맛참내 일본에 귀화하여 太子師가 되고 其 子孫은 世世로 史官이 되니라. 신라는 일본과 화약을 체결하얏스나 誓約하는 일이 만코 또 임나를 자로 침략함으로써 일본과 交兵함이 그치지 아니하다. 백제는 신라와 서로 仇視함으로써 恒常 일본을 원조하니라. 백제는 멸망할 때까지 일본의 우방이 되야 有事의 때에는 일본이 반드시 원병을 發하여 보호하얏으며. 백제의 석학과 名工등이 만히 일본에 傳授하야 학문과 기술을 教授하얏나니라.”

## (2) 1923년 조선총독부 『보통학교 국사』(상권)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그 이듬해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고 「教育勅語」에 입각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 때 만들어진 교과서에는 신공황후

18) 백순재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6)』(아세아문화사, 1977년)

가 등장하지 않는다. 비록 교육령의 2조와 같이 「교육은 교육에 관한 직어의 취지에 기초를 두고 忠良스러운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는 내용처럼 조선인을 일본에게 충실한 식민지인으로 기르고 싶었으나, 한국인의 감정을 해칠지도 모르는 신공황후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즉, 민족의식을 자극하는 것을 경계하여 조선총독부는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 및 舊學部檢定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 注意 및 字句訂正表』란 긴 이름의 책자를 내어 「옛날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칠 때에는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며 특히 「內鮮間의 감정을 해치는 사항들은 피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교과서에는 조선인의 자존심을 전드리는 신공황후가 등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23년의 『보통학교 국사』는 종전과 상당히 다른 분위기에서 탄생된다. 1919년 3.1운동의 만세사건이 있고난 후 총독부는 武斷政治에서 文化政治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교육에도 그 영향이 있었음인지 종전까지는 가르치지도 않았던 조선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그러나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식민사관이라 할수 있는 內鮮同祖論, 朝鮮停滯性論, 他律史觀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했다<sup>19)</sup>.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의 역사는 중국에 예속된 타율적이고 정체된 역사이었다는 것을 심어줌으로써 열등의식을 불어 넣으려 했던 것이다. 1922년 2월 조선교육령도 개정되고 「교육직어에 기초를 두고 총량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것이 삭제되고 그것이 각 학교의 규정으로 옮겨졌다고 해도 교과서의 편찬에는 식민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교과서가 바로 이상의 교과서였던 것이다. 여기에 신공황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중에천황의 황후를 신공황후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용모도 뛰어났다. 천황의 대에 쿠마소가 반란을 일으켜 천황은 황후와 함께 특별하기 위해 류슈로 갔으나 천황은 도중에 사망했다. 이 때 조선에는 신라.백제.고려라는 삼국이 있었는데, 이를 삼한이라 했다. 그 중에서도 신라는 우리나라와 가깝고 또한 그 세력이 강했다. 그리하여 황후는 신라를 정벌하

19) 磯田一雄. 앞의 책, p196

면 쿠마소는 저절로 평정된다고 생각하여 타케우찌수쿠네와 상의하여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정벌했다. 때는 기원 860년이었다. 황후는 출발하기 전 카시이(香椎) 해변으로 나가서 머리를 풀고 바닷물로 씻고서는 남자처럼 머리를 묶고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남자의 모습으로 하고 군사를 지휘한다. 신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신라를 정벌하고자 한다.”고 말하자 타케우찌수쿠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따르겠습니다.”고 대답했다. 황후의 배는 군사를 태우고 대마도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다시 신라로 향했다. 군선이 바다를 가득 메운 모습을 보고 신라왕은 매우 두려워하여 “동쪽에 일본이라는 神國이 있는데, 그곳에는 천황이라는 훌륭한 군주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틀림없이 일본의 神兵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방어할 수 있으랴.”하며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며 황후의 앞에서 “비록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 하더라도 매년 조공을 바치겠습니다.”고 맹세했다. 이윽고 황후는 개신하여 돌아왔다. 그 후 백제, 고구려도 우리나라에 복속했다. 이 때부터 조선은 천황의 은덕을 입게 되었고, 쿠마소도 저절로 평정이 되었다. 또 15대 응신천황 대에 왕인이라는 학자등 백제로부터 학문이 전해졌고, 베를 짜고 철을 가공하는 기술자들도 많이 건너와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이 황후의 은공이다.”

### (3) 1932년 조선총독부 『보통학교 국사』(권1)

이 교과서는 1923년에 편찬된 『보통학교 국사』(상권)을 개정한 것이다. 일본은 30년대부터는 군국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띤다. 즉, 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32년 초에는 괴뢰정권 만주국을 탄생시키고, 또 33년 10월에는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이 책은 바로 그 때 생겨난 역사 교과서이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은 비교적 은화한 것이었다. 당시 총독부가 낸 「普通學校用歷史教科書編纂에 관한 方針」에 의하면 「조선에 관한 事歷을 증가시키고, 특히 內鮮融和에 필요한 자료선택에 유의할 것」, 「日韓併合의 大旨를 남독에 필요한 史歷은 이주 상세히 기술할 것」 등으로 되어있다<sup>20)</sup>. 이는 내선융화를 부르짖는 총독부의 문화정치가 교과서상으로는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의식한 탓인지 이 교과서는 신공황후에 대한 기술에서도 전면 교과서보다도 신라정복에 대한 기술이 매우 간략화되어 있는 반면 대륙에서 학문, 공예 등의 기술이 일본으로 전해지는 기술이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특징이 엿보인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 森田芳夫 『韓國における國語·歴史教育』(原書房, 1987年) p141

“신공황후는 제14대 중애전황의 황후로 태어날 때 부터 뚝뚝하고 용모가 준수했다. 천황의 대에 규슈의 쿠마소들이 반란을 일으켰기에 천황은 이를 토벌하기 위해 황후와 함께 가서 토벌하다가 병으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다. 이 때 조선에서는 신라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고, 또 일본과 가까웠기 때문에 쿠마소는 이를 힘으로 삼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리하여 황후는 우선 신라를 정벌하면 쿠마소는 자연스럽게 평정되리라 생각하고 타케우찌수쿠네와 상의하여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정벌하게 되었다. 황후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많은 군선을 이끌고 대마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다시 신라의 해안으로 도착했다. 신라왕은 황후의 군세가 막강하다는 것을 보고 크게 무서워하여 이내 항복을 하고 매년 공물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 황후는 이를 허락하고 개선하여 돌아왔다. 그 때가 기원 860년이다. 그 후 백제,고구려도 모두 조정에 따랐으며, 쿠마소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제15대 응신천황 대에 아직기,왕인등의 학자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중국의 학문을 전하였고, 그들의 자손은 본궤로서 오랫동안 조정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서 건너와서 직물, 제봉, 제철등의 기술을 전했다. 천황은 또 사신을 멀리 남중국으로 보내어 직물, 제봉의 기술자(공녀)를 초대하여 점점 문화가 발전하도록 노력하였다.”

#### (4) 1937년 조선총독부 『초등국사』(권1)

1936년 미나미 지로(南次郎)총독이 부임했다. 그는 조선군사령관,일본육군대신,관동군사령관등을 역임한 자로 일본국내에서도 전쟁확대론자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그러한 그가 한국에 부임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진정한 내선융화의 실을 거두어 일시동인의 성지를 만드는 일이라 했다. 그러므로 그의 정책은 한마디로 황국신민화된 본질을 철저히 하고 내선일체가 되어 이른바 동아의 사태에 대처하는데 있었다<sup>21)</sup>.

그것을 위해 강압적인 정책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37년 10월 2일에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정하여 초중학생들에게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충성으로서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한다.”는 등의 구절을 외우게 하고 이를 실천시키려 했다. 그야말로 은후한 내선융화에서 강경한 내선일체의 정책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sup>22)</sup>.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숨어 있었다. 만주국 성립후 조선군은 「병력자원

21)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출판부.1971년』 p236

22) 磯田一雄. 앞의 책(1999년) p204

부족」에 대해 일찍부터 조선인도 징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황의 군대에 걸맞는 자원을 가진 조선인을 획득하여야 하며 조선군은 조선의 교육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황민화교육이었다<sup>23)</sup>. 이 책의 서두에 실려있는 천손강림의 그림이 상징하듯이 바로 「황민화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였다. 그런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신공황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중대천황의 황후를 신공황후라 한다. 황후는 태어날 때부터 현명하고 용모가 단정한 분이였다. 천황의 대에 쿠마소가 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천황은 황후와 함께 큐슈로 내려가서 이를 토벌하였다. 그러나 그 도중에 천황이 그만 죽고 말았다. 황후는 쿠마소가 자주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신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우선 신라를 복속시키면 쿠마소는 자연스럽게 평정되리라 생각했다. 신라는 바다 건너 큐슈와 마주보고 있는 나라로 매우 강성했다. 황후는 타케우찌노수쿠네와 상의하여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그 때가 기원 860년의 일이다...고려,백제,신라를 합하여 삼국 또는 삼한이라 한다. 또 백제,신라의 사이에는 임나라는 나라가 있었다. 조정은 일찍부터 임나를 복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의 사이에도 빈번한 왕래가 있었다. 따라서 호공과 같이 신라에 와서 큰 공로를 세우고 중용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라의 왕자 天日槍과 같이 조정을 흠모하여 오는 사람도 많았다. 천일왕자손은 대대로 조정을 극진한 충의로 섬겼다. 신공황후의 어머니도 그 자손 중 한 사람이다. 황후는 군선을 이끌고 대마도에 건너갔다. 그리고 신라로 향하여 진군했다. 군선은 바다를 가득 메우고 그 위세가 매우 당당하였기 때문에 신라왕은 매우 두려워하여 곧 항복을 하고 결코 매년 공물을 게을리 하지 않고 바치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이윽고 황후는 개신하였다. 그 후 백제,고려의 두나라도 또 조정에 복종하였다. 그 때부터 조선도 조정의 威德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쿠마소도 저절로 평정되었고, 또 조선지방관의 왕래도 한층 빈번해졌다. 그리하여 응신천황은 백제로부터 왕인이라는 학자를 불러 巢子 稚郎子에게 중국의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직물과 철가공의 기술자를 초청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점차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천황은 또 고려에게 안내시켜 뭇나라까지 사람을 보내어 베푸는 工女를 초청한 일도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우하였기 때문에 모두 좋아하여 그 직업에 종사하여 세상은 더욱더 발달했다. 이는 모두 신공황후의 덕분이다.”

23) 磯田一雄. 앞의책. p205

(5) 1938년 조선총독부 四年制小學校用 『國史地理』(上卷)

이 책도 앞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의 시대적 배경은 앞의 『초등국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앞의 것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황민화교육을 철저히 교육시키려는 듯이 아예 표지에 천손강림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책을 편찬할 때 1937년 7월에 학무국장으로서 취임해 온 「반도의 히틀러」라는 별명을 가진 사오바라 토키사부로(鹽原時三郎)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학생시대 때부터 투철한 皇道主義者로 분류되었고, 「천황에 절대적인 존경과 순종을 하는 길」을 과감하게 실시하는 자이었다. 그는 「內鮮融和는 理想이 아니다. 理想은 조선인의 일본화이다. 조선인의 일본화는 가능하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싶다. (중략)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인을 중국화한 것이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 중국화를 벗겨 원래의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私的인 자리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 한다<sup>24)</sup>.

그는 또 3대 교육방침을 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첫째 조선인을 천황의 충량한 적자로 육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선인을 일본인과 똑같이 황국신민으로 하는 것이며, 셋째는 교통을 참고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는 일이라 했다. 이른바 그들이 당시 외쳐댔던 國體明徴, 內鮮一體, 忍苦鍛鍊이라는 이념에 교육의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sup>25)</sup>.

이 책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 이 교과서는 후세의 학자들에 의해 국체명징의 취지를 철저히하고, 일본의 세계적인 지위를 높이는 것 등에 주안점으로 두고 편찬된 것으로서 황실중심의 발전적 사상을 일관되게 교육할 수 있는 국사교과서라고 까지 평을 받았다<sup>26)</sup>.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해의를 정벌하고 돌아온 신공황후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교육정책에도 부합되는 좋은 자료였다. 이 교과서에 신공황후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있다.

24) 伊藤猷典 「滿鮮の興亞教育」(1942年). 磯田一雄의 앞의 책(1999年)p205을 재인용

25) 손인수, 앞의 책 p237-238

26) 磯田一雄, 앞의 책 p216

“신라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서 언제나 통교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서로 친한 사이였으나 세력이 강해지자 임나를 공격하게 되어 우리나라와도 사이가 멀어졌다. 마침 그 때 큐슈지방에서 쿠마소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신공황후는 이를 평정하기 위해 지금의 福岡縣의 香椎宮까지 갔다. 황후는 그곳에서 “쿠마소는 정벌할 필요도 없다. 그것보다도 신들을 모시기만 하면 금은과 보물이 가득한 신라를 전쟁하지 않아도 반드시 복속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쿠마소도 저절로 평정이 된다.”는 신탁을 받았다. 황후는 신탁을 믿고 산과 바다의 신을 모시고 또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對馬에 건너가 그곳에서 다시 신라로 진군을 했다. 신라왕은 멀리서 황후의 군사를 보고 매우 당황했다. 이윽고 황후가 도착하자 싸우지도 않고 황후를 맞이했으며, 곧 조정에 복속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봄 가을로 조정에 공물을 바칠 것을 굳게 맹세했다. 황후는 이윽고 개선하였으며, 쿠마소도 평정했다. 그 후 이어서 백제도 고려도 조정에 복속하여 공물을 바치게 되었다.”

#### (6) 1940년 조선총독부 『초등국사 제5학년용』(개정판)

1938년 3월3일 제3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국사는 개국의 유래와 국운진전의 대요를 배우고 또 국체의 존엄함을 가르키고 황국신민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요지로 삼는다.」고 했다. 그런 취지에서 조선총독부는 1939년 9월 『朝鮮總督府 教科書編纂彙報』에서 “홍아의 신교육에 대한 국사교과서편찬의 획기적인 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천명했다<sup>27)</sup>. 그 결과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가 등장하던 그 해 5월 만주국 황제 溥儀가 일본을 방문하여 천황과 회견을 하였을 때 “일만일신일체의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나는 일본의 天照大神을 만주국에도 모시겠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이 말은 그의 진심이 아니며, 실제로는 만주국 제실 담당관인 일본 육군중장 安岡安直이 적어준 대로 대사를 읽은 것이었다<sup>28)</sup>. 이와 같이 당시 일본은 신도를 통해 일본·조선·만주가 하나라는 日鮮滿一如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 세계의 중심은 일본에 두었다. 그리하여 정신적 중심도 신도에서 찾았다. 당시 일제는 국민의 경신사상을 양양한다 하여 신사참배케 하고

27)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教科書編纂彙報 第4輯』(1940년 7월)

28) 손인수. 앞의 책 p262

그 신에게 45도나 허리를 굽혀 절을 하게 했을 뿐 아니라, 매일아침 일본 궁성을 향해 절을 시켰던 뼈아픈 경험이 바로 이 시기부터였다. 그러므로 신공황후는 세계로 뻗어가는 발판을 구축한 인물로서 강조되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 조선지방에는 삼한이라 불리우는 고려와 백제와 신라가 있었다. 신공황후의 정벌로 모두 천황의 은공을 입었다. 신공황후는 중애천황의 황후다. 천황과 함께 큐슈지방에 갔을 때 天照大神의 명을 대신 전한 住吉神의 신탁을 받았다. “신들을 받들기만 하면 싸울 필요도 없이 금은과 보물이 가득찬 신라를 반드시 복속할 수가 있다.”는 말이었다. 중애천황이 죽었기 때문에 신공황후는 산과 바다의 신을 모시고 또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멧머리에는 住吉神의 깃을 모시고 지금의 唐津 부근을 출발하여 신라로 목표로 나아갔다. 배가 도착하자 신라왕은 곧 머리를 조아리며 맞이했다. 그리고 매년 공물을 조정에 바칠 것을 굳게 맹세했다. 그리하여 황후는 住吉神을 신라의 수호신으로 정하고 그 나라의 서울에 모시게 하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이어서 백제도 고려도 조정에 복속했으며, 조공을 바치고 왕래하게 되었다. 고려, 백제, 신라가 천황의 은공을 입게되자 조정에서는 여러가지 편의를 베풀었다. 그리하여 여러 천황들은 언제나 조선지방이 서로 평화롭게 다스리려고 길고도 크게 마음을 썼다. 그리하여 나라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할 때는 곧 장군을 파견하여 진정시켰다. 응신천황과 인덕천황이 지금 大阪市에 서울을 정한 것도 해외의 왕래를 편리하게 함이다. 이 때 조선지방에는 중국의 발전된 학문과 산업이 전해졌다. 응신천황은 이를 우리나라에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조선에서 학자를 불러 중국의 학문을 전하게 했으며, 또 중국과 조선에서 직물공과 대장장이들도 초청하였다. 조선과 중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고 은공을 베풀었기 때문에 모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다. 그 다음 천황들은 응신천황의 뜻을 계승해나갔다. 중국의 학문과 산업이 전해지자 한자가 널리 사용되었고, 또 양잠이 일어나 견직물이 이용되어 옷차림과 집의 모양이 변하여 사회가 매우 발전되어 오늘날 우리 풍습의 기초가 되었다.”

#### (7) 1941년 조선총독부 『초등국사 제6학년용』(개정판)

이 교과서는 (6)과 연계된 교재로 개발된 것이다. 즉, 5학년에 (6)을 배운 학생이 학년이 올라가 배우는 과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황후가 학년과 관계없이 2년 연속 등장한다는 것은 학습상 어색할지 모르겠으나, 일제는 이 교재들을 반복학습시키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순환

법』의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40년의 (6)의 교과서가 국제명칭에 주안점이 있다면, 이번 41년의 (7)의 교과서는 국운진전에 주안점이 놓여져 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제1과의 내용이다. 그것에 의하면 「대일본제국은 항상 팔굉일우의 사상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국위는 빛나고 우리나라(일본)의 지위는 점점 높아져 오늘날 동아시아 나라들은 우리나라(일본)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려고 또 세계의 각국들도 겨우 눈을 뜨고 우리나라(일본)와 힘을 합하려고 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는 이 교과서를 통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건설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에 신공황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서술되어있다.

“고려도 백제도 신라도 중국의 나라들과 통교하여 학문과 제도와 불교가 전래되었다. 그러나 서로 세력 다툼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신공황후가 신라를 평정한 후 삼한은 모두 천황의 은공을 입게 되었다. 천황들은 그들을 임나와 똑같이 보살폈다. 신라와 백제로부터는 견직물과 철등을 비롯한 진귀한 산물을 조공으로 바쳤으며, 왕자가 와서 조정의 신하로서 일을 했다. 고려도 조공을 바쳤으며,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을 왕래할 때 길안 내를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섬기는 일은 임나를 처음으로 삼한에 널리 퍼져 일제의 친근감이 더욱 많이 생겨났다.”

(8) 1944년 조선총독부 『초등국사』(재개정판) 제5학년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교과서라서 그런지 그 내용이 전운이 느껴질 정도로 긴박하다. 곳곳에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것도 제일 첫 단원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일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것이었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昭和16年12月8日 미국과 영국에 대해 선전포고가 내려졌다.... 미국과 영국 등은 세계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동아시아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나쁜 의도를 막고 동아시아의 불행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동아전쟁은 미국과 영국을 몰아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쟁이라는 대의명분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바로 이 교과서에는 신공황후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있다.

“신공황후의 평정으로 천황의 황위가 바다를 건너 조선지방에도 빛나게 되었다. 신공황후는 제 14대 중에천황의 황후이다. 천황과 함께 큐슈로 가서 쿠마소를 평정하였을 때 天照大神의 명을 대신 전한 住吉神의 신탁을 받았다. “신들을 모시던 싸움 필요도 없이 신라를 반드시 복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라는 조선 남부에 있었던 나라이다. 중에천황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신공황후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뱃머리에 住吉神의 영을 모시고 지금의 唐津(佐賀縣) 부근에서 출발하여 신라를 향해 진군했다. 배가 도착하자 신이 말했던 것처럼 신라왕은 곧 머리를 조아리며 황후를 맞이하고 매년 조공을 바칠 것을 굳게 맹세했다. 그리하여 황후는 住吉神을 신라의 수호신으로 삼고 그 나라의 서울에 모시게 하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이어서 신라의 이웃에 있었던 백제와 고려도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고려와 백제와 신라를 삼한이라 한다. 제15대 응신천황과 제16대 인덕천황은 해외의 통교에 편리한 현재 大阪府에 서울을 정해 삼한을 보살폈다.”

#### (9) 1944년 조선총독부 『초등국사』(재개정판) 제6학년

이 교과서도 5학년용인 앞의 교과서를 배우고 나서 6학년이 되어서 다시 배우는 것이다. 그런 탓에 신공황후에 대한 것은 5학년용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기록되어있다. 연속성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시대적 배경은 앞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유의할 점은 일본이 아시아 지배의 거점으로서 한일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도용의함을 보여주는 「攘夷를 하는 참된 마음」, 「세계웅비의 근원지」, 「神威의 등장」, 「러일전쟁」에 대한 기술이 양적으로 늘어나 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대동아공영권 주장에 맞는 교육목적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였다. 그러므로 태평양전쟁은 아시아를 서구세력(미.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攘夷의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끌고 갔다. 따라서 조선을 침략한 豊臣秀吉마저도 “북경을 서울로 삼고... 동아의 중심으로 정한다면 널리 황실의 권위 넓히고 그곳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영주(大名)들을 인도에 보내고, 자신은 현재 寧波로 향하여 해상에서 남방의 경영에 힘쓰려고 생각했었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목표하고 있는 大東亞共榮圈의 건설과 매우 흡사하다”고 서술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시대에도 외국을 정벌하고 돌아온 신공황후는 여전히 인기가 있었다. 이 때에 나타난 신공황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고려도 백제도 신라도 중국의 나라들과 통교하여 학문과 제도와 불교가 전래되어 문화는 점차 발전되어 갔으나 서로 세력다툼이 이어서 오랫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신공황후가 신라를 평정한 다음부터 천황의 은공이 더욱더 조선에서 빛나 우리나라는 삼한을 진정시키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관계가 이윽고 깊어졌다. 그럼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선과 중국의 통교는 매우 빈번해져 발전된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신라와 백제가 천황의 은공을 입게되자 역대의 천황들은 이 나라들을 잘 다스려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무척 힘을 썼으며, 임나와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다. 신라와 백제는 견직물과 철등을 비롯한 진귀한 산물을 조공으로 바쳤고, 또 왕자가 와서 조정을 섬겼다. 그리고 고려도 조공을 바쳤으며,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을 왕래할 때 길안내를 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와 조선의 나라들과는 매우 친근감이 깊어졌고, 우리나라를 받드는 일은 임나를 비롯해 해외에 널리 퍼져갔다.”

#### 4. 일제의 식민정책과 교과서 편찬

이상에서 보았듯이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이 교과서마다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다.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변화되어 갔다고 할 만큼 신공황후는 교육정책자들에게도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었다. 초기 통감부 시대의 『국어독본』을 제외하면 그 내용은 모두 역사계통의 과목에 수록되어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는 신공황후와 한국과의 관계를 다른 과목이 아닌 역사를 통하여 식민지인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1905년 『국어독본』이 나오던 시대에는 역사는 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공황후에 대한 교육은 모두 역사계통의 수업을 통하여 실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교과서에 실린 신공황후의 전승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그것을 교육시킴으로써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여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였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내용 중 무엇보다 가장 변화를 겪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부분이다. 즉, 첫째 신라정벌의 동기이며, 둘째 신라와 쿠마소의 관계, 셋째 정벌의 과정, 그리고 넷째 정벌의 결과이다. 편의상 이상 네가지를 중심으로 시대마다 변해가는 내용을 추적해보기로 하자.

## (1) 신공의 신라정벌의 동기

신공황후의 신라정벌담을 한국인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먼저 무엇 때문에 신라를 정벌해야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통감부가 낸 『국어독본』에는 그 동기에 대해 「任那는 누차 신라의 침략을 당하여 구원을 일본에 청한다. 일본의 신공황후가 대군을 내솔하여 신라와 상전했다.」고 하듯이 신라의 정벌동기는 가야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공황후의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인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도 그런 묘사가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체가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중함은 1923년 조선총독부가 낸 『보통학교 국사』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나타난다. “쿠마소가 반란을 일으켜 천황은 황후와 함께 토벌하기 위해 큐슈로 갔으나 천황은 도중에 사망했다. ...황후는 신라를 정벌하면 쿠마소는 저절로 평정된다고 생각하여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정벌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통감부의 교과서 내용과는 판이하게 틀린다. 가야의 구원요청이었던 정벌의 동기가 이번에는 반란을 일으킨 쿠마소의 평정을 위해 신라로 출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술은 그 후에도 이어져 1932년의 『보통학교 국사』, 1937년의 『초등국사』, 1938년의 『국사지리』에서도 계속 서술된다.

그러나 1938년의 『國史地理』를 계기로 약간의 변화가 온다. 즉, 신라정벌은 “쿠마소는 정벌할 필요도 없다. 그것보다도 신들을 모시기만 하면 금은과 보물이 가득한 신라를 전쟁하지 않아도 반드시 복속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쿠마소도 저절로 평정이 된다는 신탁을 받았다.”는 교과서에 나타난 신공황후의 말에서 보듯이 쿠마소의 자연스런 평정이라는 이유 말고도 금은보화의 획득이라는 동기가 하나 더 붙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40년의 교과서 『초등국사』에는 쿠마소의 부분이 빠지고 “신들을 받들어 모시기만 하면 싸울 필요도 없이 금은과 보물이 가득 찬 신라를 반드시 복속할 수가 있다.”는 신탁에 의해 신라정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치 신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일을 자행해도 된다는 논리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인 1944년의 『초등국사』

(5학년용)에도 나타나 있다.

한편 1941년도 『초등국사』에는 쿠마소의 평정, 금은보화의 획득, 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이유가 서술되어 있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즉,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이 세력다툼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신공이 이들을 평정함으로써 마치 안정과 평화를 찾았다는 식의 설명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그것이 천황의 은공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1944년 『초등국사』(6학년용)에는 한술 더 떠 신공의 신라정벌은 천황의 은공이 조선에서 빛나는 일이며, 일본이 마치 평화의 사도와 같이 불안한 한반도의 정국을 진정시키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라정벌의 동기가 하나로 일관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가야의 구원요청에서 쿠마소의 반란을 평정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가 신의 의지와 금은보화로 바뀌었다가 급기야 말기에 이르러서는 불안한 한반도 정국에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다.

## (2) 신라와 쿠마소와의 관계

이러한 이유들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동기가 신라를 정벌하면 반란을 일으킨 쿠마소가 평정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공이 신라를 정벌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큐슈남부지방의 토착세력인 쿠마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녀는 그의 남편 중애와 함께 이들을 정벌하기 위해 큐슈로 갔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중애가 그만 사망하고 마는 위기마저 발생한다. 더군다나 어느 교과서에도 서술하지 않고 있으나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그녀는 임신하여 배가 만삭이 되어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서울에서는 중애의 첫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왕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한 아이(웅신)가 왕위계승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그야말로 불리한 여건만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정벌에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어느 기록에도 당시 신라가 일본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듯이 1932년 『보통학교 국사』, 1937년 『초등국사』에는 쿠마소들이 조선에서 힘이 강성해진 신라를 그들의 힘 또는 의지로

민고 반란을 일으킨다고 설명하면서 신라를 복속시키면 쿠마소는 자연스럽게 평정된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쿠마소의 배후조종세력은 신라이다는 말과도 같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 신라의 세력이 큐슈남부까지 진출했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식민사관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한반도 남부를 자기네들이 지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신공황후의 신화를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이 거꾸로 큐슈 남부가 신라의 지배권 아래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였음인지 그 이후의 교과서에는 신라와 쿠마소의 관계를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관계를 끊으려는 듯이 1944년 5학년용 『초등국사』에서 처럼 쿠마소를 정벌한 후 신라정벌에 나섰다는 식의 표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식민당국자들에게 있어서 신라와 쿠마소와의 관계는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의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정벌의 과정

정벌의 과정에서 보여준 신라의 태도에서도 통감부시대의 것과 총독부시대의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신공이 일본에서 대군을 이끌고 신라를 침공했을 때 신라도 이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그 힘이 모자라 和約을 체결하였으며, 또 백제도 그 때 일본과 통호조약을 맺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국 중 고구려는 등장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독부시대가 되면 이 내용은 판이하게 변화를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1923년의 『보통학교 국사』라고 여겨진다. 그것에 의하면 신공이 군사를 이끌고 군선을 타고 신라로 향하자 이 모습만 보고 신라왕은 두려워하여 싸우지도 않고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다는 것이다. 이 교과서는 여기서 한술 더 떠 신라왕은 신공에게 “비록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 하더라도 매년 조공을 바치겠나이다.”고 맹세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이후 백제와 고구려도 일본에 복속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정벌과정에 대한 묘사가 다소 양적인 변화가 있을

지 몰라도 비겁한 신라왕이 무기력하게 항복하여 일본의 조공국으로 전락하는 역사관은 어느 교과서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일본에 복속하여 조공국이 되었다는 것으로 굳어져 정착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공황후전승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신라정벌 이후 백제도 일본에 복속했다고 한 것에 비해, 후자는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복속하여 조공국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감부시대의 교과서는 『고사기』의 역사관에 준하여 서술을 했다면, 종독부시대의 교과서는 『일본서기』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라왕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서 하는 말이 “동쪽에 일본이라는 神國이 있는데, 그곳에는 천황이라는 훌륭한 군주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들림 없이 일본의 神兵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막을 수가 있으랴.”고 했다는 것은 일본이 신이 보호하는 신성한 나라이며, 그곳을 지배하는 천황은 聖君이며, 그러므로 그가 이끄는 병사들은 神의 군대라서 다른 나라가 도저히 대항할 수도 없을 만큼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앞으로 수행하게 될 태평양전쟁에서 식민지인을 포함한 자국민들을 독려하고 힘을 한곳에 모아 팽창주의로 나아가는데 이용하기에는 그지없이 좋은 대목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과 식민지이나 하는 것은 신공황후의 전승에서 보았듯이 화친조약에서 복속의 명세로 바뀔만큼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 (4) 정벌의 결과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통감부 시대에는 화친을 맺는 것으로 끝을 내었지만, 종독부 시대에는 신라가 일본에 복속함에 따라 백제와 고구려도 일본의 조공국이 되었다 했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 대해 일본은 “여러가지 편의를 베풀었다. 그리하여 여러 천황들은 언제나 조선지방이 서로 평화롭게 다스려려고 깊고도 크게 마음을 썼다. 그리하여 나라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할 때는 곧 장군을 파견하여 진정시켰다. 응신천황과 인덕천황이 지금 大阪市에 서울

을 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나라들과 왕태를 편리하게 함이다.”고 1940년의 『초등국사』는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서술은 1941년의 『초등국사』와 1944년의 『초등국사』(5.6학년용)에서도 명시되었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천황의 은공을 입는 영광된 것이며, 그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불안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게 되었으며, 일본과의 통교도 더욱 빈번해져 한일양국은 더욱 친근해져 문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오늘날의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여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져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벌의 결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다. 신라를 정벌함으로써 쿠마소가 자연스럽게 평정되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이끌고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에 따라 많은 선진문화가 전래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의 문화가 한국보다 열등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처음 통감부시대의 『국어독본』에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학공예등이 조기발달」하였지만 당시 일본은 그 문화가 「유치」하다고 까지 표현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와 기술자들이 전너가 일본의 문화를 계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식민지가 되면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한일합방 이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1923년의 『보통학교 국사』에는 한국문화의 전래를 부정하지않는 대신 그 부분의 기록을 정벌이 끝나고 삼한의 국가를 복속시킨 다음 조선은 천황의 은덕을 입었고 그 결과 한반도의 문화가 전래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백제의 왕인이 학문을 전하고, 기술자들이 배 짜는 기술과 철을 가공하는 기술을 일본에 전한 것은 순전히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의 결과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과서 마지막 부분에 “이는 모두 황후의 은공이다.”고 표현한 것은 한반도문화의 전래는 전쟁의 승리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이지, 결코 문화적으로 미개한 나라가 선진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식의 서술은 1937년의 『초등국사』에서도 서술하고 있다.

이와같이 아무리 한국문화가 그들의 전리품으로 서술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 문화를 발전시킨 부분마저 부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한국문화가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문화의 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일제에게나 우리들에게서나 매우 첨예하게 대립될 소지가 있는 부분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국가들이 비록 무력적으로는 정벌을 당할지는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훨씬 우위에 있는 선진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는 식민지인들의 문화적 독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것을 의식한 탓인지 그에 대한 내용의 변화가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부분에서 일어난다.

그 첫째는 1938년 『國史地理』, 1940년 『초등국사』(5학년용), 1944년 『초등국사』(5학년용)과 같이 아예 그에 대한 기술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것이다. 역사를 삭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문화의 기원마저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고사기』·『일본서기』에서도 한반도의 많은 선진문화들이 일본으로 수입되어 일본문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가려진다고 해결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취해진 것이 두번째의 방법으로 한국의 문화적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1932년의 『보통학교국사』에는 왕인과 아직기 등이 한국 문화를 일본에 전수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학문을 전했다는 식의 표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41년의 『초등국사』에도 보인다. 즉, “고려도 백제도 신라도 중국과 통교하여 학문과 제도와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신공이 삼한을 정벌함으로써 일본에 전래되었다는 식의 서술이다. 이와같이 고대한국문화의 선진성을 인정하는 것도 식민정착자들에게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던 것이다.

## 5. 결 론

지금까지 보았듯이 『고사기』 및 『일본서기』에 기록된 신화적 인물인 신공황후의 전승을 식민정착자들이 교과서를 통하여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것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승임을 알았다. 그들은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공황후의 전승을 통하여 일본은 신이 수호하는 신성스러운 나라이며, 그곳의 군대는 신의 병사들이라서 어느 누구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일본이 신의 나라이듯이 그곳을 다스리는 천황은 성군이며, 그의 지배는 억압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식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런 이론적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신공황후의 전승은 편찬자의 의도에 의해 다시 손질되어야 했다. 그런 결과 생겨난 것이 신라와 쿠마소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신라세력의 큐슈진출이 부정되어야 했고, 또 우리 문화의 전래를 전쟁의 승리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으로 전락시켜야 했으며, 심지어 한국이 어디까지 중국문화를 받아서 일본으로 전해주는 중간의 교량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문화적인 독립성마저 부정되어야 했다. 그리고 신공황후가 정벌하기 전의 한반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세력다툼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아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했다고 까지 표현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교과서에 나타난 신공황후의 전승이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정체에 이용된 신화는 신공황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측에서는 박혁거세와 석탈해 그리고 연오랑과 세오녀도 있고 호공도 있고, 일본측에서는 스사노오와 친일창, 파제편(巴提便)등도 있다. 또 굳이 신화가 아니더라도 이순신과 풍신수길과 같은 역사적 인물도 식민정체에 따라 많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일제의 식민교육정책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공황후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신공이 아닌 이상에서 제시한 다른 인물들에게도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본고의 앞에 놓인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문헌

-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연세대출판부.1971년)
- 김열규 「한국신화와 일본신화」 『한국신화와 무속연구』(일조각.1976년)
- 황폐강 「일본신화 속의 한국」 『한국학보(20)』(일지사.1980년)
- 김정학 「신공황후 신라정벌성의 허구」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경주시.1982년)
- 노성환, 「신공황후전승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16)』(한국일어일문학회. 1990년)
- 李淑子 『教科書に描かれた朝鮮と日本』(ほるお出版. 1985年)
- 鍾聲の會 「戦前の歴史教科書にみる朝鮮像」 『季刊 三千里(32)』(三千里社.1986年)
- 森田芳夫 『韓國における國語・國史教育』(原書房.1987年)
- 糟谷憲一 「朝鮮總督府の文化政治」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2) 帝國統治の構造』(岩波書店.1992年)
- 宮田節子 『朝鮮民衆 皇民化政策』(未來社.1992年)
- 磯田一雄 「皇民化教育 植民地 國史教科書」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4) 統合と支配の論理』(岩波書店.1993年)
- 磯田一雄 『皇國の姿を追って』(皓星社.1999年)
- 朴英淑 「植民地時代における日本語教育政策と普通學校教科書の研究」 『日本文化學報(6)』(日本文化學會.1999年)

Abstract

## The Analysis of Zhingoo Empress Myth in the Textbooks of Korea Government-General

No Sung-Hwan

Reveals that the myth is very important to authorize that Japan is the divine country which the god protects; the army is the army of the god which is peerless; Japan is the divine country as well as the emperor is the holy ruler; the rule of the emperor is not an oppression but a grace. The myth of Zhingoo Empress was emphasized through the education.

To make the theoretical support the myth of Zhingoo Empress readapted by the textbook editors. The results were distortions of the facts such as the advance of Kyushu by Shilla forces was denied; the spread of Korean culture in Japan was distorted as war trophy resulted from the war victory; even Korean cultural identity was denied by being defined as a cultural bridge transmitting Chinese culture to Japan; the nations in Korean peninsular fought one another ceaselessly before the Conquest of Zhingoo Empress, therefore people were suffered from the unrest due to the hostilities between the nations. The myth of Zhingoo Empress in the colonial textbooks reveals the distortion of facts vividly.